

절세위인을 모시여 조선은 밝고 미래가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해축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의 국위와 영광은 더 높이 떨쳐질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본사기자

본사기자

방 안 기

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

- 새 집들이 한 락랑구역 남사농장을 찾아서 -

공화국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장령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선경마을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락랑구역 남사농장마을에서도 새집들이경사가 됐다.

희한한 새 살림집들을 받아내고 크나큰 기쁨과 격정으로 설레이는 주민공들을 만나보고싶어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남사농장입구에 들어서니 규모있게 늘어난 아담하고 번듯한 단층, 소층, 다락살림집들이 아름다운 한옥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와 만난 농장의 문턱 너머는 불과 몇달사이에 이렇듯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섰다고,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황홀한 살림집들에서 사시절 손에 흙을 묻히고 논밭에서 땀흘리는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들린 곳은 김철수농장의 집이었다.

햇빛이 비쳐드는 널찍한 살림방이며 밝고 시원한 부엌, 세면장과 위생실, 창고 등 모든것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러져있었다.

어느곳을 보나 흠잡을데 없이 잘 꾸러진 살림집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철수농장은 말하였다.

《김철수 일터는 새 농촌마을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집이 차려질줄이야. 정말이지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김철수농장은 이사를 준비한 다음날로 다락식주래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을 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아들에게 보냈으며 이 집은 단순한 살림집이 아니라 자식대, 손자대까지 물려줄 행복의 보금자리라며 눈물을 적시었다.

햇빛밝은 창가에서 행복에



겨워있는 그와 헤어진 우리는 10여년세월 다수확분조정으로 일하고있다는 정란실녀성의 집에도 들리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새집의 주인이 될수 있었습니까. 하늘같은 은덕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라고 말하는 정란실녀의 짐을 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어퍼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꿈만 같은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다락식계단을 따라 로에 올라가면 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부엌세간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우리 녀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속에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부러워할 새 농촌살림집건설을 강력히 내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꿈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깃든 사랑의 결정체,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체온이 그대로 슬베인 행복의 새 보금자리에서 사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있었다.

《다락식계단을 따라 로에 올라가면 절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부엌세간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우리 녀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속에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신 조치

1954년 6월 공화국에서 채택된 내각결정 제79호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함에 대하여》에는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게 하여 온천약수지대를 료양지대로 설정하고 료양시설들을 복구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있었다.

폐허로 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는 사업만도 아름답게 광천자원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게 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뜨거운 배려에 공화국 인민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미 주체35(1946)년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소유였던 약수, 온천치료시설들을 국유화하도록 하시고 이듬해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료양, 기술자, 사무원들을 위한 료양소를 건설할 조치를 취해주셨었다.

준엄한 전하의 나날 동창군 대동리에서 솟아나는 한

줄기 약수를 보시고 전령이 끝나면 이곳에 료양소를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약수, 온천들을 조사장악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문적인 광천연구소와 광천조사대를 조직하여 광천조사연구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료양소건설을 전문중추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시었다. 하여 료양소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수는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요한 온천, 약수지대에 료양소를 더 많이 지을데 대한 강력한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그후 꾸러진 모든 료양소들에 유능한 의사와 간호원들을 배치하고 여러가지 료법들을 배합하여 치료하도록 정연한 료양치료체제도 세워주시었다.

나라의 광천자원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뜨겁게 인민들에게 가닿았다.

어느해인가 뜻하지 않게 강서약수의 샘줄기가 끊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력한 연구집단을 보내주시어 본래보다 2배 더 많은 물을 찾아주시었다.

오늘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약수터, 온천들마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도 광천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광천자원이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물로 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이야말로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전신이다.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인간사랑의 화원이 꽃피는 계절이 따로 없다

공화국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자신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며 성실성의 도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어디서나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해 6월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심한 화상을 당하여 생명이 빛이 꺼져가던 한 어린이가 실려왔다.

이름은 김현영, 나이는 7살, 만경대구역 선구자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전신 50%에 2~3도 화상을 입은것으로 하여 현영의 몸에서는 생환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병원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집중치료를 받고 해당할 대책들을 세워나갔지만 기성리론에 따르면 이런 최중증환자의 생환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돌발적인 보건위기로 인해 악성전염병과의 투쟁을 벌리고있던 때여서 몇배나 많은 약이 필요한 현영에 대한 약품보장이 순조롭지 않았다.

하지만 친혈육보다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의사, 간호원들은 의술만이 아닌 인술로, 둘어오는 뜻을 피우는 지극한 정성으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었다.

피부이식수술만 놓고보아도 6시간나 진행되었다. 의사, 간호원들은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 한몸을 생각하지 않았고 끼니를 버리지 않았다.

어찌 그뿐이랴. 화상독을 빼고 새살이 돋는데 순두부 음식이 좋라며 어린 현영의 입에 떠넣어주고 하고 여러가지 보양제를 마련해가지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 주던 의사, 간호원들... 마침내 현영은 기적적으로 소생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덕과 의리, 정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아끼면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남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등을 비롯하여 정과 관련한 성구, 속담들이 많이 전해져오는것은 류타락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생활습관을 잘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훌륭한 민족정통이라고 하여, 대를 두고 이어져오는 풍습이라고 하여 어

느 사회에서나 저절로 이어지고있는것은 아니다.

한번 눈길을 돌려 세상을 둘러보라.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인간관계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상상조작 할수 없는 일까지 료사로운것으로 되고있는 남조선과 같은 썩어빠진 사회, 범죄와 타락의 시궁창에서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지향해야 할 젊은 세대가 강력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덕과 정이 풍기처럼 흐르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서는 미덕과 미풍의 꽃들이 사시절 계속 피어나 사회주의대화원을 아름답게 하고있다.

이러한 미덕과 미풍의 대화원은 어떻게 마련되었인가.

지금도 생사를 다투는 위험한 시각에 한몸을 거꺼내내며 동지들을 구원한 연배들의 한 평범한 농장의 소행을 두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보내주시 친필은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성최후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다.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공화국이 펼쳐진 인간사랑의 최고화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고 오늘도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발달하고있다. 이 인간사랑의 대화원, 미덕과 미풍의 대화원에서는 꽃피는 계절이 따로 없고 언제나 미덕과 미풍의 백화가 만발하고있다.

독자문답

재중동포 한희진선생이 제기한 질문

올해는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올해는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새번데기 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올해를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딛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 관한 인민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2년간의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는 참

으로 크다. 그러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자립경제력, 국가의 힘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더 큰 진군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올해 사업의 총적방향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으로,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을 전방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으로 확정하였다.

올해는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진전에 토대하여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혀주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영국건설에 쌓아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림있는

의지이다.

지난해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투쟁을 통하여 공화국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전진발전을 위한 가능성과 자신심을 더욱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으며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내게 되었다.

올해에도 전진도상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될것이지만 공화국은 주체조선 특유의 불기항력으로 온갖 난관을 타개하고 부흥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웃음집에서

를관인민위원회 웃음집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

사람들과 친숙해진 만화영화 《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자기들의 얼굴이 비끼자 웃느라 못참겠다는 듯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들이 아니라 불특정, 물결거울 등 다양한 형태의 수지거울들에서도 누구나 베풀 그려놓고 웃는다.

웃음집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단순한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더없는 행복과 기쁨의 분출이고 더 좋은 래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의 웃음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심용석

머칠전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가면 나는 아예방에서 새어나오는 탁상등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세계적 건축기술을 알도하는 그 무슨 발명을 한다고 하면서 요사이 참도 제대로 지지 않는 막내아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탁상등불에서 사색의 나래를 띄고있는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기때문이다.

그러다 밀친듯했다며 나무람을 해도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의 활력이 약동하는 청춘...》 하며 웃음으로 넘기는 대견한



아들이다.

몇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탄원하게 되어 만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막내까지도 저 이야기의 밤을 지새운다.

(청춘, 참 좋은 시절이다. 몇 밤을 지새워도 힘든줄 모르고 저렇듯 열정에 넘쳐있으니...)

아들의 열정과 패기가 마치 푸른 숲의 싱그러움 향기처럼 내 가슴에 흘러드는 데 다음순간 떠오르는 글줄이 있었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가사의 한 대목이다.

《청춘은 푸른빛이 아니라

피땀이다. 가늘픈 손목에 칼을 그었다. 붉은 피방울로 한 글자한글자 썼다. (내 돈 내

《푸른빛》과 《피땀》

《청년백수》, 《청년빈곤》, 《은둔형외톨이》, 《빛쟁이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 모든것을 포기한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어떠한가.

청년전위, 애국청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이 부름속에 공화국청년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청년들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것

노래 《청춘송가》를 부르며 오늘도 전야와 지하막장, 어장 등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춘의 푸른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고있을 때 청춘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남조선사회.

남조선의 자살자들속에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왜 남조선에서 청춘을 피맛으로 부르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청춘이 버림받고 천시되는 사회, 꿈과 희망, 메기와 열정, 회멸과 광만의 대명사인 청춘이 온갖 좌절과 실재, 외로움과 무력감, 불행과 고통의 동의어로 되고있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하늘에 팔을 뻗으면 별인들 못따오랴 힘차게 발을 구르면 산악도 허물어지리

를 더없는 생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와 청년들이 인생을 망치고 사회의 골치거리로 버림을 받으며 절망과 타락, 범죄와 자살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남조선사회.

언제 밤을 지새웠나실게 활짝 웃으며 나를 포옹하는 아들이 깊은 생각속에 잠겨있던 나를 깨웠다.

조국을 위한 길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는 미더운 나의 아들들.

아들을 바라보는 나의 뇌리에 한자한자 이런 글이 새겨지고있다.

《청춘의 빛같이자 그 사회의 빛같이다.》

리 현 숙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주제36(1947)년 3월 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기로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던 재일동포 1만여명이 3월 9일부터 귀국한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이후에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귀국열의는 형언할 수 없었다. 귀국을 희망하여 일본의 항구들에 몰릴듯이 모여드는 동포들이 하루에도 5,000~1만여명에 달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무려 10만여명을 훨씬 넘었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데 반갑게 잘 맞이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누리 고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성스러운 민주건설사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 가능한 조건과 편의를 보장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의 이러한 귀국 방해행위로 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희생되었으며 항구들에 머물러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 보지도 못한채 눈을 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데 반갑게 잘 맞이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누리 고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성스러운 민주건설사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 가능한 조건과 편의를 보장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데 반갑게 잘 맞이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누리 고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성스러운 민주건설사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 가능한 조건과 편의를 보장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데 반갑게 잘 맞이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누리 고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성스러운 민주건설사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 가능한 조건과 편의를 보장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이러한 수렁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를 믿고 오는 데 반갑게 잘 맞이하여야 한다고, 그들을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누리 고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성스러운 민주건설사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 가능한 조건과 편의를 보장 해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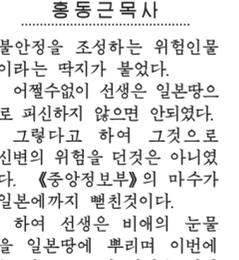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1)

다. 때는 겨레의 머리위에 일제의 채찍질이 날로 가혹하게 들쭉거리고 있었고 인원과 분노가 6.10만세시위항성으로 터져오르기 직전인 1926년 5월이었다.

부친의 영향 밑에 홍동근 선생은 일찍부터 반일감정을 키워갔다.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시기 홍동근선생에게는 로자간의 모순을 축진시켜 사회의



홍동근 목사

그런 까닭에 압록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일제를 때려부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들리면 그의 가슴을 흥분으로 팍 채워 주었다.

불안정을 조성하는 위협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쩔수없이 선생은 일본망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으로 신변의 위협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앙정보부》의 마수가 일본에까지 뻗어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장모가 될 녀인이 달려와 몸을 피하라 고 알려주었다.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퍼뜨리는 종교경쟁이 왔다고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위였지만 그걸 가려보지 못했던 홍동근선생은 그길로 남조선으로 나가기 되었다.

이제는 그 당시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위였지만 그걸 가려보지 못했던 홍동근선생은 그길로 남조선으로 나가기 되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이 선생으로 하여금 돌이킬수 없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서울의 영락교회에 들어가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모두 예수의 뜻대로 살자, 화목하게 사는 《천국같은 나라》를 건설하자, 교회당에서는 그의 설교가 그칠 줄 몰랐다.

그리나 아무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자고 목이 아프게 웨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남조선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하게 유린

본사기자 김 영 진

이역의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이 자기에 대한 탄압과 차별행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뜻없이 지켜가고 있다.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주최하에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올해의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된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올해의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된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올해의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된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올해의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된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올해의 《우리 민족연단》은 오는 9월 미에현에서 진행된다. 미에현청상회에서는 몇해전부터 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500 번째 《화요행동》

주요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이런 의지가 참가자 모두의 가슴속에 차남되었다. 지금까지 70여년전 격렬하게 벌여졌던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이 갖 걸음마를 멘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요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이런 의지가 참가자 모두의 가슴속에 차남되었다. 지금까지 70여년전 격렬하게 벌여졌던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이 갖 걸음마를 멘 재일조선인운동을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70년력사는 감출수 없다

자유와 권리를 짓밟은 각종 《군정법령》의 조작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식민지과소통체제수립을 위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미국에 의해 1946년 5월 4일에 조작공포된 《군정법령》 72호가 그 악법들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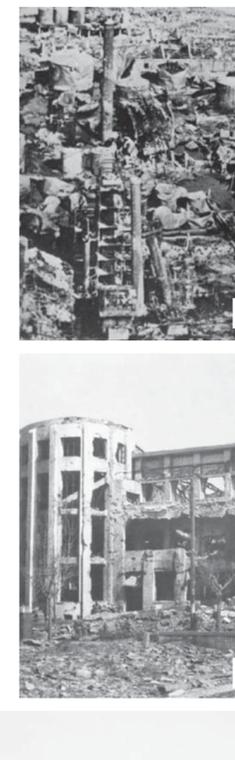
이 《군정법령》 72호에 의해 미군정을 반대하는 사소한 표현도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게 되었다. 지어 미국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도 모두 《군정법령》로 처벌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그 무슨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도 규정하지 않고 《군정법령》의 관례에 의하여 처벌함》이라고 조야박이 미군이 저들마음대로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형벌이든 가할수 있게 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남조선의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55호로 《정당등록제》를 조작공포하였다.

이 《군정법령》 19호의 제4조에는 《미군 또는 군정청 직원이나 그 권위에서 복무하는 자에게 공무에 관하여 허위진술 등 허위한 방법을 물론하고 군정청을 기만하려는 기도》, 《미군과 군정청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반항》하는 것은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혀져 있었다.

이 《군정법령》 19호의 제4조에는 《미군 또는 군정청 직원이나 그 권위에서 복무하는 자에게 공무에 관하여 허위진술 등 허위한 방법을 물론하고 군정청을 기만하려는 기도》, 《미군과 군정청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반항》하는 것은 모두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혀져 있었다.

정년 미제야말로 피에 주린 회색의 살인마이고 극악한 전쟁광이다. 3년간의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쳤다. 공화국지역에서만도 124만 7 870여명이 사망하고 랍치자 91만 1 790여명, 행방불명자 39만 1 740여명을 비롯하여 도합 506만 77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삼천리강토는 하나의 재더미로 전변되었다.



파괴된 원산시의 일부



파괴된 국립예술극장

신천에서만도 미제는 52일간의 강점기간에 군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을 집중도 낮을 불일 같은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극악한 살인마들에 의해 살상당한 처참한 시체들이 나라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에 널리고 강물에는 물이 아니라 우리 동포형제들의 피가 흘러넘쳤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평양시의 일부



《군정법령》 88호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 (1946년 5월)

피에 주린 살인마의 전쟁수렁길

얼마전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하여 공화국지역에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한데 대해 공개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것들을 내세워 미공군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 조선전쟁 당시 저들이 공화국영토를 폭격하기 위한 모의를 하는 사진과 전략목들이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것처럼 무참히, 것처럼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닥치는대로 죽어라》, 《북조선을 재더미로 만들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라》, 이것이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저들의 침략군대에 내린 살인명령이었다.

살륙과 파괴가 체질화된 미제살인귀들은 공화국의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나날에 도처에서 사람잡이에 미쳐날뛰었다. 신천에서만도 미제는 52일간의 강점기간에 군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을 집중도 낮을 불일 같은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극악한 살인마들에 의해 살상당한 처참한 시체들이 나라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에 널리고 강물에는 물이 아니라 우리 동포형제들의 피가 흘러넘쳤다.

살륙과 파괴가 체질화된 미제살인귀들은 공화국의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나날에 도처에서 사람잡이에 미쳐날뛰었다. 신천에서만도 미제는 52일간의 강점기간에 군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을 집중도 낮을 불일 같은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극악한 살인마들에 의해 살상당한 처참한 시체들이 나라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에 널리고 강물에는 물이 아니라 우리 동포형제들의 피가 흘러넘쳤다.

미일남조선 《3각공조》의 실체를 해부한다

미국과 일본것들이 새해벽 두부터 외교국방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수뇌회담을 연이어 벌여놓고 미일군사협력강화와 남조선미국일본 《3각공조》 등을 공고히 하는 문제들을 모의하였다. 일본을 전범국으로부터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둔갑시킨 미국과 제침의 칼을 빼들고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제일가는 돌격대로 나서고있는 일본. 미일사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과 엄중성은 무엇인가.

전범국의 감투를 벗어던지고 침략의 칼을 가는 사무라이후예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속망은 《자위대》를 과거의 《황군》으로 부활시켜 침략의 칼을 또다시 휘두르며 조선반도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지금 섬나라것들은 전범국의 감투를 벗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꼴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환성을 지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침략적인 국가안보전략계획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하고 선제타격능력보유선언과 그를 위한 방위비증액 등 군사대국화에 나서고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와 미국은 섬나라것들과 여러 차례의 모의를 벌여놓고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반격 및 기타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정세 및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일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패권국》꼴레를 벗겨주고 군사대국화라는

섬나라를 군사대국화와 재침에 주동하는 주범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방패》노릇을 하던 섬나라에 《창》의 역할을 부여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침행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가 주일미군을 지휘하던 종래의 체계를 주일미군사령부가 일본 령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

나갈을 달아주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제약을 더이상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군사적책상은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우발적인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사실상 군사적개입까지 한다면 제침의 기회까지 조성될 수 있다 등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패망후 전범국의 딱지를 떼지 못해 고통을 앓던 군국주의부나비가 미국을 등에 업고 드디어 날개를 퍼덕일 시각이 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섬나라것들에게 증거리순환미세일, 장거리공중대시상미세일, 합동타격미세일 등을 쥐여주고 무조건공공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날로 쇠진해지는 군사적협

을 일본에 군사대국화를 통해 보충하려는 미국의 중심의 발로이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미일사이의 《밀월》관계에 안철부절 못하는 것은 윤석열 역적패당이.

그리치 않아도 윤석열역도는 《핵공동연습》이니, 《자체핵무장보유》이니 하며 정초부터 멋없이 날뛰다가 미국상선으로부터 린이어 면박만 당하였다.

일본은 또 그들대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전범기업들이 몰아야 할 배상금을 저들이 대신 지불한다는 공욕적인 방안을 내든 윤석열역적패당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들리대며 오만하게 놀아내는 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고 거리낌없이 망발질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3자공조》, 《3자안보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역적패당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역적패당을 제쳐놓고 일본을 더 내세우고있던 역적패당은 상전의 눈밖에 날가봐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세전문가

미국에 의해 섬나라는 조선반도와 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들이 미국이 남조선보다 일본을 더 내세우고 있다. 전범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해주는 것은 너무하다. 윤석열이 미일의 군사적협력강화에 무력대고 맞장구를 칠 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에게 무슨 보충한 수가 있겠는가.

미일상전에게 줄종하고 발라맞추는 것이 체질화된 식민주주, 하수인인 역적패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상전들이 하는 짓거리가 쓰든달든 순종하고 따르는 길밖에 더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제일가는 돌격대로 내세우는 미국과 군국주의부활과 재침행동에 광분하는 섬나라것들, 두 상전의 짝에 끼워논치만 보면서 아무굴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 이 추악한 무리들의 《3각공조》가 우리 민족,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게 가져다줄 것인가 불행과 고통, 재앙밖에 없다.

본시기자 김정 혁

식민지하수인의 비후역은 추대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체계개선을 위한 성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설쳐대고 있다.

역적패당은 회의를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2023년 서울안보대화》와 병행하여 개최하며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이 조선반도유사시작침전사과 저들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조작성보화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또한 저들과 미국 《유엔군사령부》의 성격규정, 인원확충, 성원국들사이의 결속력강화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 늑거리대포함이 되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천하역적, 극악한 대결광들의 매국배주적망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가련한 식민주주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그 무슨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국방장관회의를 주최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구무이고 뽕생사납기 그지없는 추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입을 올리는 《유엔군사령부》로 말하면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원장을 탄핵하게 위반하고 저들의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한 불법적인 기구로서 미국을 우역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대명사이다.

하기에 유엔관계자들 자체가 《이름과는 달리 유엔사는 유엔에 따르는 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유엔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사회 산하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사 무국간에 어떤 보고체제도 없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과 침략적정체를 폭로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기구의 《체계개선》과 《재침전의사확인》, 《결속강화》 등을 떠들고있는 것은 유사시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을 또다시 끌어들이어 우리 겨레에게 참화를 들쳐우려는 흉심의 집증적인 발로이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지난 시기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의 추종국가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앞으로 진행하려는 남조선미국

연합상륙훈련 《쌍룡》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에 조선전쟁참전국군대들을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야말로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기어코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역적패당의 추악한 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비참한 종말시각을 스스로가 앞당기는 가소롭고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절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지고있는 초강대국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보병총을 가지고도 원자탄으로 무장한 미국과 그 멀거지들을 쳐물리친 조선이 핵강국이 된 오늘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대결전을 벌일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하나비처럼 섬기는 미국상전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을 끌어들이어 공화국과 맞먹는 것인 것이야말로 막대기로 료된 불길의 꺼보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고 해괴한 망동이며 자멸을 자초하는 짓거리이다.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해도 때와 때를 피할 수 없는 참혹이다.

본시기자 황금 속

《안보》 초학도때문에 불안하다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국방부》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 누구에 대한 《대량응징보복》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가, 자체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망발을 제쳐낸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왔다.

야당들은 조선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경제에 관물을 끼어든 역도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안보》 초학도인 윤석열 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경제가 위협당하고 주민들이 불

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자체가 《안보》의 최대위협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강하게 물었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각계층에서는 전열이 터지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는 비난과 주장이 터져나왔다.

역도의 망발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데 바빠맞은 역적패당이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내기 위한 발언이었다는니, 현실적으로는

《확장적력》 강화가 답이 아니라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자기의 무분별한 망발이 어떤 화를 불러오는지도 모르는 윤석열역도의 어리석은 추태에 대해 국제사회도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단죄하고있고 지어 미국상전까지도 윤석열의 《자체핵무장》 발언이 남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조선미국 《동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였다.

본시기자

개방부나한 대결광의

지난해 윤석열역적패당의 광란적인 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온 남조선민심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년초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책동으로 광란적으로 매여달리는 것으로 남조선 각계층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마구 짓밟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전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1월에 벌어진 역적패당의 호전적망발들과 군사적대결책동이 그것을 말해준다.

새해 첫날부터 군부의 우두머리들과 화상대화들을 벌여놓은 윤석열역도는 《새해이지만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횡설수설하다 못해 《군은 《일선불사》의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기명을 토했다.

지어 역도는 제 집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행각하면서까지 《우리의 적은 북》이라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뱉어 사람들로부터 《전쟁열이》를 떠먹이는 정신나간 머저리라는 비난을 자아내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

남조선민심의 치솟는 분노의 표출

— 새해에도 고조되는 반윤석열투쟁기운 —

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부 우두머리들도 《북에 대한 압도적대응능력구축》과 《립전필승》,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에 대해 떠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쟁폭언들이 린이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전쟁소동이 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2일 경성북도 포항시 남구해안에서 복침을 가상한 상륙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4일에는 수많은 군함들과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올해 첫 전대공해상기동 및 실탄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점 미군과 야외기동훈련과 실탄사격훈련,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들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군사적대결광기가 위협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년초부터 반공화국대결

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대》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매일같이 공동기자회견, 촛불집회, 거리행진 등을 벌이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대결책동을 규탄배격하고 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이 올해에 외세와 버려놓으려고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를 격화시키고 남조선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하고 있다.

특히 미국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적인 조선반도전개와 린이은 북침합동군사연습, 광란적인 군비증강책동과 같은 적대행위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사회의 각계층이 모두 떨쳐나 역적패당

의 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400여개의 진보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종진평화감싸이와》와 《그리스도교녀성청년회》,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격히 전개해나간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층 주민들속에서는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무능, 오만때문에 올해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불안이 높아가면서 역도를 《군대기피자》, 《행군도 못해보고 총 한방 쏘보지 못한 열간이》로 타매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윤재양이 전쟁을 입에 달고 사니 큰 번이 나겠다.》, 《전쟁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자.》, 이것이 《전쟁미치광이》인 윤석열역도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다.

한편 남조선의 운동단체들은 윤석열역도가 강행추진하려는 《로동개혁》과 로동운동단합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도 적극 벌이고 있다.

《민주로총》, 《한국로총》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행동》, 《직장갑질119》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새해 첫날부터 린평, 성명, 성토문 등을 통해 윤석열역도의 《로동개혁》을 《로동자들에 대한 재벌들의 착취날개를 달아주는 반로동정책》,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겠다는 현대판노예정책》으로 락인하면서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있다.

서울,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의 로동운동단체들의 성토모임들에서도 역도의 《로동개혁》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민주로총》산하 건설로조와 화물련대는 윤석열역도가 《로동시장유연화》, 《로조



사람을 뽑았어야지

김태룡

아무리 각박하고 모진 세월에 실낱같은 희망을 엮었다한들 이데도저래도 피차일반이라 한들 한번쯤이야 속고를 했어야지 —이게 나라냐!— 어제를 후회하는 오늘의 뼈아픈 실책. 통절한 가슴들엔 피로 맺힌다. 속이는 세상에 속아 사는 인생까지 한 번 더 속는셈치지. 후시 알겠나 했더니만 후시는 내시. 미련 가진대도 바랄걸 바랬어야지. 민생이 구겨지고 앞날은 막막하니 내쉬는 한숨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장탄식은 어느 세월에도 곱이 나려나.

있어야지. 초물이 아닌 피가 독목 떨어지는 초대. 지주의 심지엔 끝장을 볼 불이 달렸다. 오만과 독선 뿜어대는 《풍와대》엔 귀신의 망령 섬찍하게 떠도는네. 무지와 무능한 망조를 부르나 광래도 분수가 있어야지. 대결광이 피워내는 재앙의 불냄새. 굴욕과 굴종의 멍에 스스로 매고. 사대의 길 두뼉뼉 가는 그 추대 역해라.

역시 까마귀 흰칠해도 망친한 까마귀. 시라소니 범가죽 쓴다. 멍오가 되라. 저 남쪽장안 와글와글 풀이 번진다. 어찌하노. 눈이 바로 배겼어야지. 탄식과 개탄이 격노의 폭풍을 부른다. 사람을 뽑았어야지! 사람을 뽑았어야지!



한겨울철의 구수한 군밤, 군고구마향기



귀부리 얼어드는 맨땅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평양시내의 곳곳에서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중구역 경림과일남새상점 군고구마매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 러진 껍질사이로 노란 속살을 드러낸 군밤과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를 받아안고 병글거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펼쳐진 단 군고구마를 맛보고 식구들생각에 한봉지 사두고 간다는 녀성도 있다.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는 밤새에 늙은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길을 가던 총각도 처녀의 손목을 잡아준다.

《군고구마맛은 언제 보아도 별맛이거던.》

《추운 날에 더운물까지 따라주는 봉사자들의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독특한 그 향기에 끌려 따끈한 군밤, 군고구마를 후후 불며 달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겨울철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 확립

공화국의 최첨단고려약공장에서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효능높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활성화시키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금당화의 약리적가치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를 실현하려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공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장종업원들을 평양의학대학원격교육부에 입학시키고 실력을 부단히 높였다.

이 과정에 금당화의 생리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도 찾아내고 약리성분들을 깨끗이 추출해낼수 있는 설비도 제작하였다.

또한 추출해낸 금당화엑스를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배합비율을 찾아내고 금당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업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효능높은 금당화계열의 고려약들이 나오게 되었다.

천연독색제품인 금당화엑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함량은 은행나무잎이나 콩의 수신패에 달하며 비타민E함량은 소꿉이나 신선한 꿀벌의 수천배에 달한다.

또한 금당화꽃과 금당화면역활성성약도 여러가지 질병예방과 치료에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떡국 만들기

떡국은 쪄고기를 넣고 끓이는것이 제격이지만 쪄지 않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대신 쓰기도 하였다.

참대칼로 떡국대를 썰어 락화생모양의 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는가 하면 백미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빚어서 국물에 넣고 생떡국을 끓여먹는 등 그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다.

떡국을 만들 때 먼저 백미가루로 떡국대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찬물에 헹군 다음 쪄고기국물이나 닭고기국물에 넣어 3~5분정도 끓인다.

끓인 떡국을 대접에 담고 과, 후추, 깨, 김가루 등을 둔다.

떡국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흡수도 잘된다.

본사기자



《민속무용》과 《민족무용》

《민속무용》은 다 같이 해당 민족이 즐겨 추는 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뜻을 바로 알고 정확히 써야 한다.

민속무용이 해당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무용이라면 민족무용은 인간생활과 풍속, 감정, 의식을 반영하는 민속무용과 달리 민족의 특성을 민족적인 고유한 틀 등으로 표현하는 무용이다.

《민속적》인것은 해당 민족에게만 고유한것이므로 《민족적》인것으로도 된다.

실제로 킨를 들고 추는 춤은 조선녀성들의 민속과 관련되지

《민속무용》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인 행동으로 되기때문에 《민족무용》으로도 된다.

하지만 모든 《민족무용》이 《민속무용》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민속적》인것을 반영한 무용만이 《민속무용》으로 된다.

본사기자

조선의 국가상징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창적인 구상과 세심한 손길아래 태어난 공화국국장은 당고있는 내용과 색채, 구도에서 자주독립국가, 불매의 위력과 통성변형할 공화국의 앞날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을 통하여 공화국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을 통하여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도래하여 더욱더 부강번영해가는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은 지난날 갖은 천재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인민들이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당시의 현실은 물론 농업발전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고있다.

국장의 한가운데 새겨진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상징하고있는 것으로서 날로 통성변형할 공화국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

하게 해주고있다.

타원형으로 된 국장의 붉은 띠와 그우에 새겨진 국호를 통하여 일심단결로 승리멸치는 공화국의 불멸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밝은 빛을 뿌리며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배가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시인 박팔양

김려수라는 필명으로 불리운 박팔양은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1920년대에 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자로 있었다.

그는 서정시 《물노래》를 발표한 후 《카프》성원으로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문학활동을 적극 벌였다.

초기에 쓴 《공장》, 《러명이전》, 《밤차》 등에서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문인힘으로 밝은 앞날을 앞당겨줄 신념과 락관을 동포들에게 심어주었다. 해방전 그의 창작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진달래》이다.

박팔양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지령도하시는 항일혁명투쟁에 적극 고무되어 시 《봄》, 《승리의 봄》, 《선구자》 등

도 내놓았다.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다시맞는 영광의 날》, 《영광찬란한 자유독립의 길로》, 전쟁시기에는 《진격의 밤》, 《우리학생들》 등을, 그 이후시기에는 《건설의 노래》, 《천리마의 노래》, 《비날론이야기》, 《농촌으로 가는 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심으로 평안북도당위원회기관지 《바람》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의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대학에 돌아온 박팔양은 교육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년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크나큰 신임속에 현역작가로 글을 썼다.

특히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노래한 현시, 송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박팔양선집》과 《박팔양시선집》은 그의 시적재능과 정열을 보여주는 도서들이다.

본사기자



《민속무용》과 《민족무용》은 다 같이 해당 민족이 즐겨 추는 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뜻을 바로 알고 정확히 써야 한다.

민속무용이 해당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무용이라면 민족무용은 인간생활과 풍속, 감정, 의식을 반영하는 민속무용과 달리 민족의 특성을 민족적인 고유한 틀 등으로 표현하는 무용이다.

《민속적》인것은 해당 민족에게만 고유한것이므로 《민족적》인것으로도 된다.

실제로 킨를 들고 추는 춤은 조선녀성들의 민속과 관련되지

《민속무용》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인 행동으로 되기때문에 《민족무용》으로도 된다.

하지만 모든 《민족무용》이 《민속무용》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민속적》인것을 반영한 무용만이 《민속무용》으로 된다.

본사기자

은성물고기화석

은성물고기화석층은 은성군 향당리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비탈면에 있다.

물고기 화석은 1975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하세의 세션주층 황록색분사암과 니암층으로 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조개류, 골뱅이류 등의 화석들도 나왔다.

화석층의 너비는 4m, 길이는 30m이다.

이 화석층에서 은성물고기화석이 나왔다.

은성물고기화석은 길이가 34~45cm이고 높이는 15.5cm

전된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표본이며 척추동물 특히 물고기류의 진화발전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1)

고구려시기 동비홀고을(개성시 서북일대)이 자리잡은 레성강기슭의 풍류동마을에서 있는 일이다.

사시절 마을을 모르고 석송산골안에서 홀리내리는 맑은 시냇가 동네의 한복판으로 흐르는 풍치수려한 동네라고 하여 풍류동이라 불리우는 이 마을에 무달이라고 하는 30대의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진봉홍빛 북송아꽃이 만발하고 피꽃새들이 날아오는 좋은 절기에 무달은 아침부터 누렁소 암수 한쌍에 연장을 메워가지고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따라오는 바람에 무달은 구경꾼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아버지는 예순이 되었지만 아직도 쾌거와 기운이 있어 보람을 흥겹게 드라루며 밭을 보기 좋게 갈아나갔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무달의 눈에는 존경과 효성의 빛이 가득 어렸다.

얼마나 자애롭고 인정많은 아버지인가, 또 아는것은 얼마나 많고...

무달이 알고있는 세상리치에 대한 대부분은 아버지에게서 배운것이었다.

소를 부리는 일만 봐도 그러했다.

아버지는 무달이 잠빠가 굳기 전에 벌레 소를 부리자면 뽀뽀뽀해도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며 일기 쉽게 일 깨워주었다.

소에게는 타고난 부축점이 있다. 몸집이 큰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까닭에 풀배(1위)며 물배(2위)를 포함해서 4개의 밤주머니가 있는데 풀배는 엄청나게 큰데다가 원컨으로 치우쳐있다.

그러다보니 누울적에 앞발로 웃몸을 고이면서 풀배에 부당이 실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때는 소가 왼쪽으로 넘어질수 있다. 그때 허약한 소들은 제힘으로 일어지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육중한 몸뚱이가 원컨으로 치우친 풀배를 꼭 누르다보니 새김질할 풀이 들어있는 밤주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여 그안의 나뭇바람이 우아래로 통하지 못하니 질식해서 나중에는 죽을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소를 부리는 사람은 소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달구지나 연장을 메운 소는 오른쪽으로만 돌릴수 있도록 소고삐를 오른쪽에 둔것이다.

잘 달리는 팔과 달리 소는 엄청나게 큰 풀배때문에 동작이 굼뜨다. 그래서 한번

이 물결하였다.

무정을 열어놓은 단지에서 뽀뽀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을 물물 울리었다.

늙은이의 몸보신에는 그저 뜨끈한 음식이 제일이라면서 늘 시아버지의 밥대접에 원심을 쓰는 안해였다.

《아, 잘 먹었다.》

뜨끈한 생이국을 달게 자시는 아버지를 보느라니 안해가 더욱 고와보았다.

안해의 얼굴이 고무면 새

라고 믿었던 안해에 대한 믿음이 출지에 무너지는것같았다.

그사이 시아버지가 불편해할새라 각근하게 돌봐드린 안해의 그 모든 효성스러운 행실이 가식이었다 말인가.

사람이란 어려운 일에 닥쳐야 안했다고 안해가 그런 서순짜리 녀인이라고 생각되자 기분이 참치고말았다.

무달이 입이 쓰지워 말을 못하는데 안해가 진속을 터놓았다.

《어- 맛좋다. 그제 이 뜨끈하게 들어가야 속이 후련해진다나. 험네 아가! 왜 안색이 좋지 못하느냐?》

그제야 무달은 안해의 얼굴이 전과 달리 화려함을 알아보았다.

안해는 그전부터 시아버지에게는 숨기는것이 없었다.

《아버님, 이차(우물집) 앞을 지나오는데 그 집 아버님이 마당에 나와 한탄하더군요. 자기같은 늙은이를 물어가는 호랑이는 왜 없느냐고...》

무달은 대뜸 기분이 잡쳐 이마살을 찡그렸다.

또 《우물집》머느리인가. 《우물집》머느리의 델떡먹은 행실이 또 되살아난 모양이다.

밭살이나 먹는 집의 딸이라고 시집은 첫날부터 시부모를 돌볼데 불손하기 지극인데 지어는 로망했다고까지 역정을 부리는 못된 녀인이었다.

늙은이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키운 부모들이고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온 귀인들이다. 젊은이들한테 힘과 용기가 있다면 늙은이들에게는 깊은



《사람이 늙어서 제일 어려운것은 교직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간 이후로 전 시아버님이 웃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효과가 불어약처럼 아무리 지회들이 효도를 바친단들 못된 어머니만 못한 법이예요.》

무달은 그 말에 고까왔던 기분이 상시에 사라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안해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간지 한해가 지난 어느날이었다.

두해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안해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안해는 불속 집에 어머니한분을 모셔오라고 하였다. 그때 무달은 또 다른 자기

동상치료에 좋은 몇가지 방법

동상은 기온이 그리 낮지 않아도 습도가 높으면 쉽게 입을수 있다.

또한 바람이 세면 피부결면에서 열손실이 많아지면서 동상을 입게 된다.

장갑, 양말, 신발 등이 젖었을 때, 작은 신발을 신었을 때에도 동상을 입을수 있다.

다음의 민간요법으로 동상을 치료할수 있다.

- 동상을 입은 부위가 벌겋게 부었으면 적당한 량의 고추가루나 생강, 마늘을 물

에 넣고 말아서 그 물로 동상부위를 씻는다.

- 발에 동상을 입었을 때에는 밀가루를 칠한후에 놓고 닭으면서 태운다. 이때 생기는 연기에 언 부위를 2~3분간 충분히 쏘인다.

- 가지부리를 적당한 물에 달인 다음 그 물로 언 부위를 하루 두세번씩 약 한주일 정도 씻는다.

- 감자를 구워 껍질을 벗기고 깰어서 풀처럼 만든 다음 언 부위에 붙여도 좋다.

본사기자

역사일화

고니를 새기다 못되면 파오기라도 된다

학문이나 수양은 단계를 밟아 낮은데로부터 점차 높은데로 올라가야 성공한다는 뜻으로서 옛사람들의 학문, 수양의 요령을 담은 말이다.

옛날 리성이 서울에 공부하러 가있는 조카에게 화답글을 써보냈다.

《내가 지금 량학사, 장학사 두분을 스승으로 삼고 두분의 학문과 도덕을 배우고있는데 내 생 각은 두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먼저 배워야 할줄 안다.

사람인즉 장학사가 사람이 됨이 확실하고 겸박해서 나 도 그 선생을 존경하니 너는 그분을 따라배우기 바란다.

량학사는 호협하면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녀석 존경하나 내가 그 선생을 본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선생을 본받다 못되면 그래도 근면하고 신의있는 선비가 되겠기때문이다.

이러하면 고니를 새기다 못되면 파오기라도 될게 아니냐.

하지만 량선생을 본받다 못받으면 천하에 허망한 사람으로 떨어지고말겠다.

학문이란 대번에 산꼭대기로 치달아오를게 아니라 기슭으로부터 발뼀발뼀 올라가야 상상봉에 오를수 있듯이 확실한 장선생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호방한 량선생을 배우는게 순서일것같다.》

본사기자